

#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주부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의 고취 방안\*

—농촌 주부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에 관한 실태—

김기남 · 권수애(충북대학교) · 김숙종(충북 농촌진흥원)

## I. 서론

최근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 등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자연의 파괴는 인류의 생존마저도 위협할 만큼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잇달아 보도되는 세계 각국에서의 이상 기후(가뭄, 폭설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 및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이변 등은 이러한 환경오염이 초래한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는 표어 아래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모든 정부와 국민은 자신의 복리와 후손들을 위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보존에 공동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진교훈, 1990). 또한 1992년 유엔이 주관한 리우 회의에서는 각종 지구 환경보존과 관련된 국제 규약 및 의정서가 체결된 바 있고,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죽어가는 자연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자구책들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정진승, 1993).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60년 이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환경의 오염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1970년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이 극심해지고, 그 피해가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최돈형, 1992).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하천 물고기의 폐죽음 및 기형 물고기의 발생, 하수 COD의 급격한 상승 및 적조화 현상 등은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조선일보, 1994), 일부 지방의 이상 가뭄과 계절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기온의 변화 등도 환경오염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1995).

그런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하천 오염의 원인 물질 중 72%가 생활하수이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하수 처리장의 보급율은 불과 3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조선일보, 1994),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의 30%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것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준한, 1995). 또한 빈 우유갑이나 빈 병, 폐 신문지 등의 재활용율도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77년에 환경보존법을 공포하여 오염물의 배출을 사전, 사후에 규제, 감시토록 하고 있으며, 1990년 1월에 환경처를 설치하였고, 1994년말에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본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각종 환경 운동 단체 및 민간 주도 단체들의 활발한 홍보 및 계몽 활동 결과,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가고 있고, 199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조선일보, 1995).

그러나 수질오염의 원인인 폐수는 주로 산업용 폐수에 한하여 규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하수의 원천인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는 어렵고,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의 경우에도 국민 각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 시설이 미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환경이 도시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기 쉽다. 또한 농촌 주부들은 도시 주부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에는 가축의 분뇨 처리문제 등 농촌만의 특수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농촌 주부들의 환경의식 및 실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가정에서 주부들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주부의 환경실천 수준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좌우될만큼 가정에서 주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10개 군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들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보전 의식과 실천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차후 진행될 그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설정 및 교육의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 대상과 기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충청북도 10개 군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들로서 각 군당 30명씩 총 300명이었다. 대상 군은 충주, 청원, 괴산, 제천, 영동, 음성, 보은, 진천, 단양, 옥천이었다.

질문지는 각 군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사를 통하여 배부하였고, 각 군의 생활지도사들이 주부들에게 배포한 후 기록하게 하였으며, 자기응답법과 면접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의 회수율은 100%이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들을 제외시키고 본 연구에 사용한 것은 총 298부이었다. 조사기간은 1995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약 1주일간이었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이 8개, 수질오염 방지 및 절수에 관한 사항 11개,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2개,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5개,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5개,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9개, 환경 지식에 관한 사항 6개, 기타 사항 4개 등, 총 60개 문항이었다.

### 3.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전체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거주지역, 생업, 영농 규모, 가족수, 급수원)에 따른 환경의식 및 실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chi-square test를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37.9%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50대가 21.0%이었으며 3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은 11.4%로 주로 30~50대 주부들이었다.

학력은 국졸이 36.9%로 가장 많고 중졸 27.2%, 고졸 24.8%로 농촌지역 주부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관광지나 공장지대가 아닌 일반 농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92.9%)이었고, 생업은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가구가 49.6%로 제일 많고 농사만 짓는 경우 27.9%, 농촌이지만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는 경우가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하는 경우 영농 규모는 1000~3000평인 경우가 46.3%로 나타났고, 1000평 미만인 경우가 26.4%, 3000평 이상인 경우가 27.3%이었다.

가구의 가족원수는 3~5명이 대부분(66.8%)이나 6명 이상인 가구도 21.8%나 되어 농촌지역의 특성을 볼 수 있었다.

가정내 급수원은 자가수도인 경우가 52.0%로 가장 많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42.6%로 나타났다(〈표 1〉 참고).

#### 2.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실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촌 주부들이 그들의 가정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표 2~8〉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생업 종류, 영농규모, 급수원)에 따른 실천 정도의 차이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총 인원 N=298, 단위; 명(%))

연 령	30세 이하	13(4.4)
	31~40세	113(37.9)
	41~50세	81(27.2)
	51~60세	70(23.5)
	61세 이상	21(7.0)
학 력	무학	23(7.7)
	국졸	110(36.9)
	중졸	81(27.2)
	고졸	74(24.8)
	대졸 이상	10(3.4)
거주지역	일반농촌	277(92.9)
	공장지역	3(1.0)
	관광지역	8(2.7)
	기타	10(3.5)
생업 (농사여부)	농사만	83(27.9)
	농사와 가축을 기름	148(49.6)
	가축만 기름	9(3.0)
	농사도 가축도 기르지 않음	58(19.5)
영농규모	1000평미만	61(26.4)
	1000~3000평	107(46.3)
	3000평이상	63(27.3)
가족수	2명이하	34(11.4)
	3~5명	199(66.8)
	6명이상	65(21.8)
급수원	상수도	127(42.6)
	자가수도	155(52.0)
	간이수도	13(4.4)
	기타(우물)	3(1.0)

\*N=231(농사 짓는 가정임)

#### 1) 절수와 수질오염 방지의 실천

##### (1) 절수의 실천

농촌 주부들의 절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수, 설거지할 때의 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세면이나 설거지할 때 항상 그릇에 받아 사용한다는 주부가 38.6%이고 때때로 그릇에 받아 사용하는 주부가 37.6%, 계속 수도물을 틀어 놓고 사용

하는 경우가 21.5%로 나타나, 김기남 등 (1995)의 도시지역 중학생 자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할 때 계속 수도물을 틀어 놓고 세수하거나 설거지하는 비율이 도시보다 낮아서 농촌 주부들이 물을 더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면, 목욕, 세탁 후 남은 물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68.1%이었으나 전혀 재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31.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도 도시 주부의 50% 정도보다 재사용율이 높아 농촌 주부들의 절수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빨래할 때 항상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는 46.3%, 가끔 모아서 하는 경우는 19.8%이고 빨래감이 나올 때마다 즉시 빨거나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빠는 경우가 33.9%로 나타났다.

화장실이 양변시설인 경우가 절반 가량이었으며 그 중 변기의 절수를 위하여 벽돌이나 병을 넣어 사용하는 경우는 약 30%, 넣지 않는 경우는 약 70% 정도로 변기에 사용하는 물의 절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수질오염 방지의 실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 린스 등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84.2%이고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는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49.6%, 액체나 고체의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49.4%로 나타났고, 세탁기에 사용하는 세제로 합성분말 세제를 86.2%, 합성 액체세제를 6.7%를 사용하고 있어 약 93% 정도가 합성세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양치질할 때도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는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87.2%)이었다. 따라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50% 정도가 합성세제이며, 세발이나 세탁시는 85% 이상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절수와 수질오염 방지의 실천

(총 인원 N=298, 단위: 명(%))

세면, 설거지할 때 물 사용 방법	항상 그릇에 받아 사용	115(38.6)
	수도물을 계속 틀어 놓고 사용	64(21.5)
	때때로 그릇에 받아 사용	112(37.6)
	생각없이 되는 대로 사용	7(2.3)
세면, 목욕, 세탁 후 남은 물 사용	항상 재사용	39(13.1)
	가끔 재사용	164(55.0)
	전혀 사용하지 않음	95(31.9)
빨래감 모아서 빨기	항상 한꺼번에 뺀다	138(46.3)
	가끔 모아서 뺀다	59(19.8)
	항상 즉시 뺀다	82(27.5)
	별 생각없이 되는 대로 한다	19(6.4)
변기 속에 벽돌이나 병 넣기	넣어 놓는다	44(14.8)
	넣지 않는다	105(35.2)
	양변기가 없다	149(50.0)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세제	세수비누	28(9.4)
	샴푸	85(28.5)
	샴푸 사용후 린스	120(40.3)
	샴푸와 린스가 합쳐진 세제	46(15.4)
부엌에서 사용하는 세제	비누와 식초	19(6.4)
	합성 액체세제	148(49.6)
	천연 액체세제	53(17.8)
	부엌용 고형비누	94(31.6)
세탁기에 사용하는 세제	밀가루, 쌀뜨물 등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2(0.7)
	합성 가루비누	1(0.3)
	합성 물비누	257(86.2)
	고형비누를 물에 녹여 사용	20(6.7)
양치질할 때 치약 사용	기타	9(3.0)
	치약 사용	12(4.1)
	죽염 사용	260(87.2)
	보통 소금 사용	28(9.5)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의 계량	기타	9(3.0)
	계량컵으로 표준양만큼 사용	1(0.3)
	계량컵으로 표준양보다 많이 사용	123(41.1)
	계량컵으로 표준양보다 적게 사용	44(14.8)
부엌 배수구 걸름망에 망 씌우기	눈대중으로 적당히 넣음	18(6.1)
	꼭 씌운다	113(38.0)
	가끔 씌운다	84(28.0)
조리 후 남은 기름 처리	씌우지 않는다	48(16.2)
	휴지나 신문지로 닦아냄	166(55.8)
	싱크대 배수구에 그냥 버림	203(68.0)
	폐식용유는 재생비누를 만듦	40(13.5)
기타	기타	34(11.5)
	기타	21(7.0)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의 경우 표준량 만큼만 계량하여 사용하는 주부(41.1%)보다, 계량컵을 사용해도 표준량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눈대중으로 적당히 넣는 주부(52.8%)가 더 많았다. 농촌 주부가 도시지역 주부(김기남 등, 1995)보다 합성세제의 사용 비율이 높고 눈대중에 의한 세제 사용 비율이 도시 주부 25.1%보다 높게 나타나 농촌 주부가 도시 주부보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세제사용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합성세제는 우리 나라 하천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될 만큼 수질오염에 악영향이 크므로(환경청, 1988; 두산그룹, 1994),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적정량을 쓰도록 하는 계몽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수대에서 버리는 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배수구에 거름망을 꼭 씌우는 주부가 28.0%인 반면에, 전혀 씌우지 않는 주부가 55.8%로 나타났고, 조리시 남은 기름을 버릴 때 휴지나 신문지 등으로 닦아내고 설거지 하는 경우가 68.0%, 폐식용유나 재생비누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11.5%로 비교적 설거지 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절수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태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세수나 설거지할 때 그릇에 물을 받아하는가, 계속 흘려보내면서 사용하는가는 학력( $p=0.017$ ), 급수원( $p=0.032$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학력이 낮을수록, 급수원이 상수도인 가정의 물을 그릇에 받아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빨래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정도는 연령( $p=0.027$ ), 생업 종류( $p=0.008$ ), 급수원( $p=0.050$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의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 생업이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비농가의 농촌 주부인 경우 급수원이 상수도인 가정의 주부가 세탁물을 항상 모아서 세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기 속에 벽돌이나 병을 넣어 절수하는 정도는 연령( $p=0.007$ ), 학력( $p=0.006$ ), 생업 종류( $p=0.000$ ), 급수원( $p=0.000$ )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비농가 가정일 수록, 상수도가 급수원인 가정에서 변기통에 벽돌이나 병을 넣어 절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세제는 연령( $p=0.022$ ), 학력( $p=0.032$ ), 생업 종류( $p=0.004$ )에 따라 유의차를 보여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비농가 가정의 주부일 수록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 사용시 세제를 계량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여( $p=0.033$ ), 연령이 높은 주부일 수록 눈대중에 의해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토양오염 방지의 실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촌 주부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45.7%가 가축먹이로 사용한다고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는 23.9%이고 쓰레기통이나 배수구에 흘려버리는 경우가 22.5%, 필요한 이웃에 주거나 기타가 5.2%, 버리지 않는 경우가 2.7%로 나타나서 약 70% 가량이 가축먹이나 퇴비로 사용하고 있어, 도시 주부의 74%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남은 음식의 처리유형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 $p=0.005$ ), 학력( $p=0.000$ ), 생업 종류( $p=0.000$ ), 영농 규모( $p=0.011$ ), 급수원( $p=0.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비농가 주부일 수록, 농사짓는 농촌의 규모가 적은 가정일 수록, 급수원이 상수도인 가정의 주부일 수록 남은 음식을 버리는 비율이 높고 퇴비나 가축먹이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농촌에서 가축 분뇨의 처리는 60.8%가 퇴비

를 만드는데 이용하고 분뇨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처리하는 경우는 10.6%,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12.8%, 기타가 15.8%로 응답하였다. 폐비닐이나 농약병의 처리는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67.8%,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11.1%,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14.1%, 기타가 7.0%로서 대체로 분리 처리를 잘하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거나 소각, 매립하는 경우도 25% 가량이어서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가축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연령( $p=0.017$ ), 학력( $p=0.007$ ), 생업종류( $p=0.000$ ), 급수원( $p=0.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부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집단이, 학력이 낮을수록,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가 주부가, 급수원이 자가수도인 가정의 주부가 가축분뇨를 따로 처리하거나 퇴비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살 때 담아온 비닐 주머니는 <표 3>에서와 같이 모아서 재사용하는 경우 80.2%,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 7.3%로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87.5%이고 소각하는 경우 7.1%, 그 때마다 버리는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다 쓴 폐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47.0%로 가장 많고 따로 모아 수집 장소에 가져다 주는 경우가 36.9%, 나머지는 땅속에 묻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응답하였다. 비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장바구니의 이용율을 보면 항상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경우는 24.2%에 불과하나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48.7%이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27.1%나 되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습관이 되어서 42.0%, 귀찮아서 27.7%, 장바구니가 없어서 16.1%, 비닐 봉지나 쇼핑백을 얻기 위해서 5.4%, 기타 8.8%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주부들과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는 주부들의 경우에는 장바구니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3> 토양오염 방지의 실천

(총 인원 N=298, 단위: 명(%))

남은 음식 처리 방법	가축먹이로 줌	136(45.7)
	퇴비 만드는데 사용	71(23.9)
	건대기와 국물을 분리하여 버림	67(22.5)
	버리지 않고 다 먹음	8(2.7)
	필요한 이웃에게 줌, 기타	16(5.2)
가축분뇨 처리 방법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따로 처리함	32(10.6)
	퇴비를 만듦	181(60.8)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림	38(12.8)
	기타	47(15.8)
폐비닐이나 농약병 처리 방법	따로 분리하여 처리	202(67.8)
	소각하거나 땅에 묻음	33(11.1)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림	42(14.1)
	기타	21(7.0)
물건 담아 온 비닐봉지 처리 방법	그때마다 버림	16(5.4)
	모아서 재사용	239(80.2)
	한데 모아 태움	21(7.1)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줌	22(7.3)
폐건전지 처리 방법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림	140(47.0)
	따로 모아 수집장소에 가져다 줌	110(36.9)
	땅 속에 묻음	17(5.7)
	기타	31(10.4)
장바구니 사용 여부	항상 사용	72(24.2)
	가끔 사용	145(48.7)
	전혀 사용하지 않음	81(27.1)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귀찮아서	83(27.7)
	장바구니가 없어서	48(16.1)
	비닐 봉지나 쇼핑백을 얻으려고	16(5.4)
	습관적으로	125(42.0)
	기타	26(8.8)

이로써 농촌 주부들은 남은 음식, 가축 분뇨, 폐 비닐이나 농약병의 처리는 대체로 토양오염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폐건전지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거나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볼 때 수은 중독 등 중금속 오염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 대기오염 방지의 실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살충제 사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50.0%가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6%는 끈끈이나 모기향을, 9.1%는 농약을 사용하였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의 종류로는 연령(p=0.004), 학력(p=0.024), 생업(p=0.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정의 주부일 수록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끈끈이나 모기향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 손질시에 무스나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65%를 넘었고(항상: 14.1%, 가끔: 51.3%),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5%정도에 불과하여 살충제 사용시와 머리 손질시에 대기오염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머리 손질시 무스나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정도는 주부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 수록 사용 빈도가 높았다(p=0.007). 주부의 학력과 환경실천 정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환경관리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 보고들(서정희, 1986; 홍기남, 1992; 최남숙, 1994)이 있는 반면, 노영화 등(1992)은 학력이 높을 수록 소극적인 환경보전 행동을 나타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력이 높은 주부들이 환경보전 행동에 있어 소극적임을 보여 주었다.

난방 연료로는 기름을 사용하는 가정이 80% 이상이고, 12% 정도는 연탄을 사용하였으며 연탄과 기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4.7%, 그밖에 가스나 농·임산 부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도 기름을 이용한 난방이 대다수여서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스레인지의 불꽃 크기는 그릇에 맞게 조절하는 경우가 70% 이상이고 냉장고, 다리미, TV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반 가량이 에너지 절약에 신경쓰지 않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열거나, 다리미질도 모아서 하지

<표 4>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

(총 인원 N=298, 단위: 명(%))

사용하는 살충제	살충용 농약 사용	27(9.1)
	스프레이식 살충제	149(50.0)
	끈끈이나 모기향	103(34.6)
	전혀 사용하지 않음	19(6.3)
머리 손질시 무스나 스프레이 사용 여부	항상 사용	42(14.1)
	가끔 사용	153(51.3)
	전혀 사용하지 않음	103(34.6)
난방용 연료	연탄	34(11.5)
	기름	242(81.1)
	가스	3(1.0)
	농·임 부산물	5(1.7)
	연탄과 기름	14(4.7)
가스레인지 불꽃 크기 조절	그릇에 맞게 조절	212(71.2)
	별로 신경쓰지 않음	74(24.8)
	항상 강한 불 사용	12(4.0)
냉장고 사용 태도	음식을 적당량 채우고, 문도 자주 열지 않음	142(47.7)
	음식량이나 문여는 일에 신경쓰지 않음	128(43.0)
	음식을 가득 채우고 문을 자주 여는 편임	28(9.3)
다리미질 방법	한꺼번에 모아서 다림	120(40.3)
	되는 대로 다림	52(17.4)
	옷이 있을 때마다 다림	126(42.3)
TV 보는 방법	보고 싶은 프로그램 골라서 봄	149(49.8)
	아무때나 켜서 나오는 대로 봄	88(29.6)
	항상 켜놓고 봄	56(18.9)
	전혀 보지 않음	5(1.7)
여름에 더위 해결 방법	부채 사용	20(6.8)
	선풍기 사용	276(92.5)
	에어콘 사용	2(0.7)
가전제품 사용 후 플러그 처리	안 쓸때는 항상 뽑아 둠	73(24.5)
	플러그는 뽑지 않고 스위치만 끄	137(46.0)
	플러그는 뽑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함	88(29.5)

않고 TV를 절제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92.5%가 선풍기를 사용하였고, 6.8%가 부채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은(0.7%) 극히 적었다.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 항상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경우는 24.5%에 불과하고 29.5%는 가끔 뽑아두며, 46.0%는 플러그는 뽑지 않고 스위치만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

농촌 주부들은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축 분뇨, 농약, 농업 부산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0.2%이며 생활 쓰레기와 하수라고 응답한 경우는 36.3%, 산업폐수나 매연은 13.2%, 기타가 0.3%였다. 생활 쓰레기의 배출량은 농업 쓰레기 36.6%, 음식 쓰레기 33.2%, 종이류 및 의류 18.0%, 연탄재 및 연료 부산물 7.1%, 기타 5.1%로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에서의 환경오염과 쓰레기원은 농사일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비농가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의 경우 30대 이하인 주부는 음식 쓰레기, 종이 및 의류가, 40대와 50대 주부는 농업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응답하였다(p=0.001).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주부들은 농업 쓰레기가 많다고 하였고, 학력이 높은 주부들은 음식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였다(p=0.001). 생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농사일을 하는 가정에서는 농업 쓰레기가,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정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많았으며(p=0.000), 농사 규모가 클 수록 농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4). 또한 급수원이 상수도인 가정은 음식 쓰레기가, 자가수도인 가정에서는 농업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향상하는 경우가 68.5%이고, 31.5%는 가끔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수거차는 65.1%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나 34.9%는 전혀 운행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운행한다고 하였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은 38.6%, 소각장은 없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40.6%이

고 20.8%는 소각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쓰레기차 운행이 잘 되지 않고, 도시지역보다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5〉 참고).

〈표 5〉 쓰레기 분리수거

(총 인원 N=298, 단위: 명(%))

농촌 환경의 오염원	생활 쓰레기 및 생활 하수	108(36.3)
	산업 폐수와 매연	39(13.2)
	가축 분뇨, 농약, 폐비닐 등	150(50.2)
	농업 부산물	
	기타	1(0.3)
생활 쓰레기의 배출량	연탄재 및 연료 부산물	21(7.1)
	음식 쓰레기	99(33.2)
	종이류 및 의류	54(18.0)
	농업 쓰레기	109(36.0)
	기타	15(5.1)
쓰레기 분리수거 여부	항상 분리수거함	204(68.5)
	가끔 분리수거함	78(26.1)
	전혀 분리수거하지 않음	16(5.4)
쓰레기 수거차 운행 여부	정기적으로 운행	194(65.1)
	불규칙적으로 운행	72(24.2)
	전혀 운행되지 않음	32(10.7)
쓰레기 소각장 유무	있음	115(38.6)
	없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태움	121(40.6)
	없음	62(20.8)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생업 종류(p=0.005)와 영농 규모(p=0.05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정과 농사 규모가 작은 가정일수록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이었다. 쓰레기 소각장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 수록(p=0.000) 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가정일수록 소각장이 있거나 지정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5).

5) 물자절약의 실천

물자절약의 실천에 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폐 식용유로 만든 비누를 직

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16.5%, 만들지는 않아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5.0%, 기회가 되면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경우가 18.8%이고 관심없는 경우가 9.7%로서 폐 식용유로 만든 재생비누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지는 재생화장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14.8%이고 신문이나 다른 종이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7.4%이며 77.5%는 재생이 아닌 일반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생화장지의 이용율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재생용품은 가격이 싸서 사용한다는 경우가 45.3%이고, 품질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33.1%,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재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21.6%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비추어 볼 때 재생용품의 호응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도시 주부들의 경우에도(최남숙, 1994) 비슷하였다.

입지 않는 옷의 처리는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54.9%로서, 남에게 주거나(22.9%) 다른 용도로 재활용(13.5)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상품을 구입할 때 과대 포장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57.4%로서 도시 주부들(최남숙, 1994)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포장에 관계없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30.1%였다. 선물할 때 포장이 화려한 것을 선택하거나 포장이 좋으면 내용물도 좋아 보여 구입하는 경우도 12.5%로 나타났다. 과대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는 정도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p=0.020$ ), 학력이 높을 수록( $p=0.000$ ) 과대포장된 상품을 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46% 정도인데 이 중 가끔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리필 제품을 모르는 사람이 45.3%나 되며 8.7%는 리필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필 제품의 구입에 있어서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p=0.006$ ), 학력이 높을 수록( $p=0.046$ )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고 연령

〈표 6〉 물자절약의 실천

(총 인원 N=298, 단위: 명(%))

폐 식용유로 만든 비누 사용 여부	항상 직접 만들어 사용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용해 보았음 기회가 되면 사용하겠음 관심없음	49(16.5) 164(55.0) 56(18.8) 29(9.7)
사용하는 화장지 종류	일반 화장지 재생 화장지 신문이나 다른 종이류 기타	231(77.5) 44(14.8) 22(7.4) 1(0.3)
재생용품에 관한 생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용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 환경문제 때문에 일부러 사서 사용	135(45.3) 99(33.1) 64(21.6)
입지 않는 옷 처리 방법	버리거나 태워 없앴 남에게 줌 다른 용도로 재활용 그냥 쌓아 둠 쓰레기 수집소에 연락하여 가져가게 함	164(54.9) 68(22.9) 40(13.5) 9(3.0) 17(5.7)
상품 포장에 대한 관심도 및 구입상품 종류	포장이 화려한 것이 내용도 좋아보여 구입 선물할 때만 포장이 화려한 물건을 선택 과대 포장되지 않은 물건을 구입 포장에 관심없고 무조건 싼 물건을 구입	10(3.4) 27(9.1) 171(57.4) 90(30.1)
리필 제품 구입여부	항상 리필 제품을 구입 가끔 리필 제품을 구입 리필 제품을 구입하지 않음 리필 제품을 모름	22(7.4) 115(38.6) 26(8.7) 135(45.3)
환경마크 상품 구입 여부	가능한 한 환경마크 상품을 구입 환경마크를 몰라서 아무 것이나 구입 환경마크는 알지만 아무 것이나 구입	70(23.5) 160(53.7) 68(22.8)
일회용품 사용 빈도	늘 줄여 사용함 행사 때만 사용함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5.4) 68(22.8) 163(54.7) 51(17.1)
폐품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만들어 보았음 만든 일 없음	133(44.6) 165(55.4)
물자절약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자주 교육함 가끔 교육함 전혀 교육하지 않음	53(17.8) 188(63.1) 57(19.1)

이 높거나 학력이 낮은 주부는 리필 제품에 대하여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환경마크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환경마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23.5%인데 반해 환경마크를 알지만 아무 것이나 구입하는 경우가 22.8%, 환경마크를 몰라 아무 것이나 구입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 되었다(53.7%).

일회용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54.7%이고 행사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22.8%,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7.1%로 나타났으며 5.4%만 자주 사용한다고 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은 절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품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44.6%, 물자절약에 대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경우가 80.9%로 나타나 농촌 주부들은 대체로 물자절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재생용품, 리필 제품, 환경마크 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아 잘 실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표 6〉 참고).

#### 6) 환경지식 및 환경교육

환경에 관한 지식은 주로 TV나 라디오(78.1%), 신문, 잡지(11.1%)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나서(〈표 8〉 참고),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홍혜숙, 1985; 이용선, 1986; 황덕순, 1992; 안향아, 1994; 최남숙, 1994).

환경에 관한 몇 가지 문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조사한 결과 헤어스프레이, 폐 건전지, 합성세제, 합성섬유의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83.2~89.9%의 높은 정답율을 보인 반면 고행 비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68.5%의 주부들만이 알고 있었고, 환경마크를 알고 있는 주부들은 55.4%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정답율을 나타내었다(〈표 7〉 참고). 이러한 결과를 청주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김기남 등, 1995)와 비교해 볼 때, 환경 지식에 대한 정답율이 농촌 주부들의 경우 더 낮은 편이었다.

환경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

〈표 7〉 환경지식의 정답율

(총 인원 N=298)

내 용	인원(%)
환경마크 알아 맞추기	165(55.4)
고형비누의 환경오염 여부	204(68.5)
헤어 스프레이의 환경오염 여부	264(88.6)
폐 건전지의 환경오염 여부	268(89.9)
합성세제의 환경오염 여부	258(86.6)
합성섬유의 환경오염 여부	248(83.2)

우가 56.2%이고 환경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90.6%를 나타내 환경교육의 기회를 절실히 원하는 주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교육 수강 경험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도시 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황덕순,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3; 최남숙, 1994). 환경 지식의 습득원으로서 TV나 라디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과 다수의 주부들이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한 환경교육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겠다.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는 한 번 획득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므로(이정우, 1994)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주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정우 등(1989, 1994)의 연구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과 오염방지를 위한 참여도와 관리 행동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장혜경(1992)의 연구에서도 도시 주부의 자원보전 행동 및 에너지 소비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체 접촉 빈도와 환경교육 수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일을 나름대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부들은 38.7%인 반면, 52.5%는 관심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8〉 환경교육에 대한 의견

(총 인원 N=298, 단위; 명(%))

환경에 대한 지식의 습득원	TV나 라디오	233(78.1)
	신문, 잡지	33(11.1)
	반상회	15(5.1)
	지역사회 프로그램	15(5.0)
	친구, 기타	2(0.7)
환경교육 참여 빈도	한두 번	104(34.7)
	세 번이상	27(9.1)
	전혀 참여한 일 없음	167(56.2)
환경교육 참여 의사	교육을 꼭 받고 싶음	73(24.5)
	형편이 된다면 받고 싶음	197(66.1)
	교육은 필요 없음	28(9.4)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활동	19(6.4)
	가능한 일을 나름대로 함	96(32.3)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일을 모름	157(52.5)
	관심없음	26(8.8)

(〈표 8〉 참고). 환경과 여성의 역할(한국여성개발원, 1993)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환경문제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환경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응답

한 바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환경이나 절약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정도는 연령( $p=0.000$ ), 학력( $p=0.001$ ), 생업 종류( $p=0.023$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부의 연령이 낮을 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비농가 가정의 주부일 수록 자녀에게 환경이나 절약에 관한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고).

#### IV. 결론 및 제언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절수의 실천면에서 볼 때, 수도물을 항상 그릇에 받아서 사용하는 주부는 38.6%에 불과하고 물을 계속 틀어 놓고 사용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나 되는 점, 목욕이나 세탁 후 남은 허드렛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30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실천 정도의 차이

	실천 사항	연령	학력	생업 종류	영농 규모	급수원
절수, 수질 오염 방지	세수, 설거지물 사용 방법	N.S	0.017	N.S	N.S	0.032
	빨래감 모아서 빨기	0.027	N.S	0.008	N.S	0.050
	변기 속에 벽돌(병) 넣기	0.007	0.006	0.000	N.S	0.000
	세발시 사용하는 세제	0.002	0.032	0.004	N.S	N.S
	세탁시 세제계량 여부	0.033	N.S	N.S	N.S	N.S
토양오염 방지	남은 음식 처리 방법	0.005	0.000	0.000	0.011	0.000
	가축분뇨 처리 방법	0.017	0.007	0.000	N.S	0.000
대기오염 방지	살충제 사용	0.004	0.024	0.015	N.S	N.S
	머리 손질 제품 사용	N.S	0.007	N.S	N.S	N.S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 쓰레기 배출량	0.001	0.001	0.000	0.014	0.000
	쓰레기 분리 수거율	N.S	N.S	0.005	0.050	N.S
	쓰레기 소각장 설치 유무	N.S	0.000	0.005	N.S	N.S
물자절약, 환경교육	과대 포장 상품 구입 여부	0.020	0.000	N.S	N.S	
	리필 제품 사용 여부	0.006	0.046	N.S	N.S	N.S
	자녀에게 환경교육 시키기	0.000	0.001	0.023	N.S	N.S

% 이상인 점, 또한 양변기가 설치된 가정에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물 절약에 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물 절약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상태라 하겠다.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면에서도 머리 감을 때, 세탁시, 양치질할 때 합성세제와 치약을 사용하는 가정이 85% 이상인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양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중, 남은 음식을 가축 먹이나 퇴비로 활용하는 가정이 약 70% 가까이 되어 도시 지역보다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30% 정도의 사람들은, 특히 연령이 젊고 고학력 주부일 수록, 남은 음식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바구니 사용율에 있어서도 항상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비율은 지극히 적었고, 대부분의 주부들이(약 70%) 습관적으로나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장바구니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물건 구입시 담아 온 비닐 봉투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태우는 비율도 상당히 되었으며(12.7%). 또한 과반수 정도의 사람들이 폐 건전지를 그대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으로서 물 자절약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는데, 재생화장지 사용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었고, 리필 제품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며(45.3%), 환경마크 상품에 대하여서도 과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몰라서 아무 물건이나 구입한다든지, 환경마크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 것이나 구입하는 주부들이 20% 이상이나 되어서, 이러한 사실은 환경오염과 관련지어 볼 때 큰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기오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정에서 스프레이식 살충제 사용율이 비교적 높았고(50% 정도), 머리 손질시 헤어 스프레이나 무스 사용율도 65%나 되었다. 이와 같은 살충제

나 헤어 스프레이류의 사용은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은 주부일 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난방 연료 역시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름 사용율이 높아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려되며, 가전제품(냉장고, 다리미, TV 등)사용시 절전에 관한 의식 및 실천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전제품 사용 후 플러그를 뽑지 않고 늘 꽂아 두는 비율이 75% 이상이나 되어서 이에 대한 계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농촌 환경의 오염원이 가축 분뇨나 농약, 농업 부산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 되었으며, 생활 쓰레기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농업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였다. 특히 연령이 젊고 학력이 높은 주부일 수록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비율이 높아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율은 68.5%를 나타내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이 정도로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환경지식의 습득원으로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면에 있어서,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농촌 주부들의 대부분(90% 이상)은 환경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농촌 주부들의 환경보전 의식 및 실천에 관한 실태를 살펴 보았는데, 실천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점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흡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환경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환경 지식의 습득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 방송 매체측의 실용적이고도 유익한 환경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김기남, 권수애(1995). 청주지역 중학생 자모들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과 실천 연구. 환경교육, 제8권, 66~79.
- 김정욱(1990). 지구환경 위기실태 및 극복방안. 공해대책, 5월호.
- 김준한(1995). 쓰레기 종량제가 경제, 환경에 미치는 효과. 조선일보, 1월 16일자.
-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영화, 강성진(1992).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 소비생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 보호원 연구보고서.
- 노채영(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시 여대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1994).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백년 이웃 별책부록, 통권 제81호.
- 서울대 환경안전연구소(1988). 환경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환경연보, 창간호.
-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손부순(1986).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안향아(1994). 주부의 환경문제 인식정도가 환경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선(1986). 환경문제에 관한 주민 인식 실태.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우, 이명숙(1989). 도시주부의 생활환경 오염인지와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 연구, 28집, 123~149.
-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1994). 도시주부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과 관리행동. 생활과학연구지,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장혜경(1992).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과 자원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승(1993). 한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환경교육의 과제와 지향전망. 환경교육, 제4권, 79~87.
- 조선일보(1994, 1995). 94.10.10, 95.1.16, 1.19, 1.25, 2.3, 2.8, 2.23, 2.24, 2.25, 3.5.
- 진교훈(1990).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환경윤리학의 과제. 환경교육, 제1권, 29~43.
-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 폐기물 분류배출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돈형(1992). 환경문제와 우리의 자세. 과학교육, 통권 309호, 28~33.
- 한국여성개발원(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
- 현금희(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홍혜숙(1985).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일반가정을 중심으로. 숙대교육대학원.
- 환경청(1988). 환경보존, 29~30.
- 황덕순(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만익(1990).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환경교육, 창간호, 17~28.

## ABSTRACT

**Model on Program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Rural Housewives'  
Recognition & Practice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Recognition & Practice of Rural Housewive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Kim, Ki-Nam and Soo-Ae Kweo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k-Jong Kim(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ural housewives' recognition and practice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0 rural housewives living in Chung-buk provinc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m during a week from August 25<sup>th</sup> to August 31<sup>th</sup> in 1995.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y saved water quite well in washing their faces and the dishes compared with urban housewives, but they did not save water so well in using the lavatory.

They used synthetic detergent, one of water pollutants, more often than natural soaps in shampooing and laundering. In addition, they did not use a measuring cup. It resulted in the waste of detergent and aggravation of water pollution.

2. Food waste was disposed of properly, but used batteries were not collected separately. A disposable vinyl bag was more commonly used than a reusable shopping basket. The reason for not using a shopping basket was bothering or uncustomary. Since most of them did not know refillable products or goods with environmental mark, they did not use those. Therefore, housewives should be educated in order to prevent soil pollution.

3. The use of spray-type pesticide and hair treatment, one of air pollutants, was widespread among them. They hardly recognized and practiced saving of electric power when they used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4. The major source of environmental knowledge was mass media like TV or radio. Many of them did not know the practical way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More than ninety percent of respondents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In conclusion, low level of recognition and practice of rural housewive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dicated that a systematic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